

광산구, 주차정보플랫폼 '광산시민행복주차장' 앱 서비스 개시

모바일 앱 운영, 공영·공유주차장 정보 제공 주차장 결제 연계 등 서비스 개선 지속 추진

광주 광산구(구청장 박병규)가 언제 어디서나 주차장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주차정보플랫폼 '광산시민행복주차장' 앱 서비스를 정식 운영한다.

광산구는 지난 2020년 광산구 스마트솔루션챌린지사업을 통해 휴대폰 기반 스마트주차플랫폼을 구

축, 지난 1년6개월간 서비스 개선을 진행했다.

이를 통해 선보이는 '광산시민행복주차장'은 광산구 관내 총 81개소 공영 및 공유주차장 정보를 담고 있다. 주차장 위치부터 주차면, 주차요금, 운영시간 등 상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특히, 광산구는 이용률이 높은 44개소 주차장에 대해선 차량계수기를 설치해 주차 가능 면 정보를 앱에 실시간 제공한다.

그동안 광산행복 주차장 웹사이트에서만 가능했던 공영주차장 정기관 신청도 '광산시민행복주차장'으로 할 수 있다.

앱은 안드로이드폰은 구글플레이 스토어, 아이폰은 앱스토어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설치 후 가입해야 플랫폼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광산구 관계자는 "실시간 주차장 정보 제공으로 시민들의 주차장 이용 편의 증진과 더불어 주차장 이용 활성화를 통한 도심주차난 해소가 기대된다"며 "서비스 이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주차장 결제서비스 연계 등 지속적인 서비스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광산시민행복주차장'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광산구시설관리공단(062-960-9916)에 문의하면 된다. /서기만 기자

서구, 민선8기 구청장 공약사업 최종 확정 5대 분야·21개 공약·49개 과제 공약 실천계획 수립

광주 서구(구청장 김이강)는 지난 7월 29일 민선8기 구청장 공약사업을 최종 확정했다.

서구는 김이강 구청장이 출마선언 이후 주민에게 약속한 내용들의 실천 가능성, 효과성 등과 관련해 소관 부서 검토 후

경제도시 ③사람중심 복지도시 ④생태중심 안전도시 ⑤행복중심 문화도시를 실현하기 위함이다.

확정된 민선8기 구청장 공약사업은 확정 절차 등을 거쳐 이달 중 서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주민들에게 공개될 예정이다.

각 분야별 23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서구 지역발전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5대 분야, 21개 공약, 49개 과제를 최종적으로 확정했다.

민선8기 주요 공약으로는 ▲우리 동네 마을정부 기능 강화 ▲소상공인 활력지원센터 설치·운영 ▲소상공인 다시서기 발판 마련 ▲함께서구 돌봄체계'구축 ▲기후위기대응1번지 녹색서구 실현 ▲건기좋은 소통테마길 조성 ▲지역맞춤형 청년창업 지원 등이 있다.

이는 '함께 서구 우뚝 서구'라는 구정 구호와 함께 5대 구정 방침인 ①마을중심 자치도시 ②골목중심

아울러, 서구는 분기별로 공약사업에 대한 부서 자체평가를 비롯해 매년 1회 주민 등으로 구성된 공약 이행평가단의 정기적 평가를 통해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공약사항에 대해 수정·보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김이강 서구청장은 "앞으로 차질 없는 민선8기 구청장 공약사업 추진을 통해 주민들이 '조금 더 행복하고, 조금 더 안전하고, 조금 더 편리한 삶!' 한마디로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기만 기자

북구, 하반기 남도 전통음식 광주 대표음식 수강생 모집

광주 북구(구청장 문인)는 31일까지 '2022년 하반기 남도 전통음식·광주 대표음식' 강좌와 식(食)문화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강생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강좌는 남도 전통음식의 계승발전과 광주 대표음식의 상품화를 위해 마련됐으며 오는 9월부터 15주 동안 운영된다.

남도 전통음식 강좌는 평소 접하지 못한 전통음식인 ▲발효·저장음식 ▲향토음식 ▲떡·한과 ▲웰빙한식 ▲생활요리 등 5개 과정이며 실습 위주의 강의가 진행된다.

광주 대표음식 강좌는 주먹밥, 오리탕, 상추튀김 등 7가지 광주대표음식 만들기 및 무형문화재와 함께하는 광주대표음식, 푸드스타일링 등으로 이뤄진다.

식문화프로그램은 ▲시와 음식 ▲나무와 음식 ▲노래와 음식 ▲차와 음식 등 총 10개 과정으로 음식과 문화를 결합한 체험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남도 전통음식과 광주 대표음식 강좌 수강료는 12만원, 식문화프로그램은 무료이고 수강인원 등 자세한 내용은 남도향토음식박물관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북구 남도향토음식박물관은 지난 2007년 개관 이후 15년 동안 3천150여 명의 전통음식 수요 인력을 배출했다. /서기만 기자



광주 동구(청장 임택)는 최근 계림1동 도시재생사업의 거점시설이 될 청소년 복합문화공간 '상상플러스센터'가 청소년이 주도하는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한 민·관·학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동구청 제공

동구 '충장22' 문화로 작가·지역민·상인 소통

올해로 개관 2주년을 맞은 충장22가 지역 문화예술인들이 창작에 전념할 수 있는 레지던스 공간으로 자리매김한 데 이어 작가·주민·상인이 함께 문화로 소통하는 교류의 산실로 새롭게 떠오르고 있다.

옛 간장공장 건물을 리모델링해 지난 2020년 5월에 개관한 충장22는 공모 절차를 거쳐 위탁업체로 선정된 사회적기업 ㈜상상소가 그

동안 충장으로 상권과 연계한 협동 프로그램 개발, 버스킹 공연 등 지역 대표 문화공간으로 운영해왔다.

지난 2년여간 코로나19 장기화 속에서도 현재 충장22의 22개 레지던스 독립실 공실률은 0%다. 개관 이후부터 줄곧 작가, 크리에이터, 청년 문화기획자 등 지역 문화예술인 등 20여 명의 작가들이 입주해 상시 거주하며 다양한 창작 레지던

스 사업에 참여하고 있어서다.

구체적으로 충장22 입주 작가로 활동하는 지역 문화예술인을 대상으로 하는 창작 레지던스 사업은 ▲충장로 4·5가 뷰티산업 및 명인 명장들과 연계한 협동 프로그램 개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광주문화재단, 광주비엔날레 등과 연계한 입주 작가와 공동 프로그램 개발 등이다. /서기만 기자

남구, 녹색도시 '전기 자전거 구입비' 지원

광주 남구(구청장 김병내)는 전기 자전거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남구는 "전기 자전거가 출퇴근 등 생활형 교통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올해 사업비 2천만원을 투입해 관련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전기 자전거 구입 보조금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동기 장치 자전거 또는 개인형 이동장치에 해당돼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조금 지원 규모는 전기 자전거 한 대당 최대 30만원이다.

지원 대상은 8월 1일 기준으로 남구에 2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중인 주민 가운데 만 19세 이상(2003년 8월 1일 출생자까지)인 사람이며, 반드시 관내 자전거 판매점에서 전기 자전거를 구입해 운영해야만 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전기 자전거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부에서 정한 안전요건 기준에 적합한 자전거다. 페달링을 감지해 모터가 작동하는 PAS 방식으로 시속 25km 이상 움직일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않고, 자전거 전체 중량도 30kg 미만인 자전거다.

다만 페달링이 불필요하며 100% 전기 힘으로 구동하는 스로틀 방식과 스로틀 및 PAS 겸용 방식은 원

보조금을 받고자하는 주민은 남구청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공고문을 확인한 뒤 남구청 홈페이지 '참여세상'을 클릭, 전기 자전거 구입 보조금 지원 코너에 접속해 오는 16일까지 온라인으로 개인정보 등을 담은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서기만 기자

한적하고 여유롭게 나만의 시간을 갖고 싶은데 어디까지?

집나가면 '구시'이다

자연속의 가족마을 곡성

2018년 곡성군 사진공모전 최우수작상 수상작